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침시다

고객의 범문비

3월23일 서울 번동, 교리공부를 위해 모인 S회 의 화요정기법회. 이번 주엔 종단 고위직을 역임 했던 H스님이 법사다. 두시간 남지 법문을 듣고 스님에게 드린 범문비는 50만원.

"항상 고명한 스님을 모시고 싶지만 우리 회원 이 20여명 정도라 매주 50만원씩 마련하는 것은 꿈도 못꾸요" S회 총무의 자조적인 투덜이다.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D사. 학생회 법사로 학인스님을 모신다. 활동비는 한달에 30만원 정도. 하지만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준비가 충실치 못할 뿐더러 2년정도 하면 떠난다는 것이 사찰계의 실정이다.

재가법사나 대학교수의 범문비는 통상 15만원~20만원. 이렇듯 스님들의 범문비는 30~50만원이다. 물론 돈 한푼 받지 않고 법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스님들도 많다. 하지만 절에서 나름대로 큰스님께 사례를 표하거나 보나 금역기권이 생겨난 것이다. 회원이 많거나 신도가 많은 큰 절이라면 월라도 적은 인원의 법회라면 범문비 때문에 난처함을 겪게 된다.

신도들로서는 큰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 자체에 환희심을 낸다. 하지만 범문비를 마련하지 못해 큰스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많은 것이 문제다.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80평생을 중생교화에 힘쓰신 부처님께 절을 지어 회시하고 대중공양을 마련하는 등 크고 작은 신도들의 정성은 이어졌지만 부처님께서는 차별없이 법을 듣고자 하는 온갖 곳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전법하셨다.

도심포교당이나 지방의 작은 사찰에도 큰스님의 감로수같은 법문을 기다리는 불자들이 많이 있다. 법문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범문공정은 차별없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

원로의원·총무원장등 19명 만장일치 추대
원로회의 의장에 탄성스님...부의장에 도원·종산스님

혜암(慧庵·80)스님이 조계종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4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종정추대를 위한 회의를 열고 혜암스님을 만장일치로 종정으로 추대했다. 추대법요식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이날 종정으로 추대된 혜암스님은 1920년 전남 장성에서 출생. 일본 유학중(선관박진) 등의 선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해 46년 해인사로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태백산 등암과 지리산 상무주암 등 전국의 재방선원에서 수행에 전념했다. 93년 11월부터 98년 7월까지 방장으로 추학들을 이끌었으며, 94년 4월 개혁신당을 출범시키며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됐다.

추대에 앞서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종단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종헌준비를 지키면 종단에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며 종헌준비를

준수를 당부했다. 혜암스님은 회의 직후 해인사로 떠났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종정추대 회의에는 원로의원 혜암스님과 비룡 승당 도원 운경 지종 석구 도건 성수 탄성 종산 보성 정현 법전 녹원 도원스님 등 원로의원 16명과 담연지 종정추대위원인 총무원장 고산, 호계원장 일서, 종회의장 법등스님 등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일타 승산 청하 원담스님 등은 외국체류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혜암스님은 이날 오전 청사에 나왔으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종정추대 회의는 종정추대 과정에서 의견 상충이 있어 진통을 겪었으나 마지막에 혜암스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원로회의 의장단 선출은



◊조계종 10대 종정으로 추대된 혜암스님.

30분만에 끝났다. 이에 앞서 녹원 성수 탄성스님 등 12명의 원로의원들은 1일 시내 열매서 더호텔에 모여 의견을 조율했다. 원로회의는 또 이날 원로회의

의 의장에 탄성(呑聲·70)스님, 부의장에 종산(宗山·76)스님과 도원(道源·72)스님을 선출했다. (의장, 부의장 각각 3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호계원장 일서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원로회의가 끝난 직후 "조계종 10대 종정에 혜암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혜암스님의 종정추대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는 조계종단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정화회의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지난 1일 정화회의에서 월하스님을 종정으로 재추대했다"며 "새 종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초파일 남북발원문 나온다

불추위, 조불련과 합의
교계대표 방북도 논의

올해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초파일 남북공동발원문이 발표된다.

민족화합발전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명진스님)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3월 29일 중국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발원문 초안을 서로 전달했다. 양측은 빠른시일내 다시 만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의 공동발원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남북불교계 대표의 방북과 관련하여 조선불교도연맹은 6월 초순 방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강산 순례와 하안거등의 일정이 있어 어렵다는 남북합의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방북이 이뤄지도록

목 상호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금강산 순례사 복원, 금강산 순례단 방문과 관련하여 조선불교도연맹은 행사나 사찰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불련과 사전에 상호긴밀히 연대하여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진각종 총무원장 회장 정사승은 2일 중국 북경시내 해당화음식점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서기장, 류인명 책 임지도원 등과 만났다.

평화통 대표단(단장 법타)도 3일과 4일 북경 시내 음식점에서 조불련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제2차 LA 남북해외불교도조국 통일기원 합동법회 개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차주상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nia.com)

"문화부 종무실 현상태 유지"

김종필총리 1일 밝혀

김종필 국무총리는 1일 "문화관광부 종무실의 현상태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이날 총리실을 방문한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단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단담에는 종교지도협의회 의회 공동대표 의장 지극 목사

한양민족종교협의회회장, 장종철 원불교 서울교구장 등 종교계 대표와 신나균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참석. 종무실 축소 방침의 재고를 요청했다.

정부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말 정부부처 조직조정을 최종 확정한다.

김총리는 또 종교계에서 벌이고 있는 3·1현충운동에 정부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종정추대 이후의 조계종-혜암스님은 누구-종정스님에 바란다 3면

"구산선문 모르고 한국불교 논할 수 없다"

'구산선문 참선기행'에 부쳐



정병조 (동국대 교수)

선문구산이 도입된 것은 9세기 초반의 일이다. 대부분은 마조도일(馬祖道一)의 계통이었지만, 순지(順之) 같은 인물은 중국 위양종(禪宗)의 후예이다. 선문구산의 도입은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①중국 강남(江南) 불교의 유입이다. 7, 8세기까지의 한국 불교는 북조(北朝) 불교의 강력한 영향권에 있었다. 왕족불(王即佛)과 같은 정권말착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강남의 불교는 철저히 초세간적(超世間的)의 흐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본다. ②중국불교사에 사의 한계는 당말송초(唐末宋初)의 불령(佛令)이다. 즉 이전년 역사위에 가장 빈약한 자료 때문에 이 시기의 중국불교는 인 계속에 묻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문구산의 스승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불교의 허점을

메꾸어 갈 수 있다. ③ 선문구산이 신라하대의 불교계를 주도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화엄종을 비롯한 교종의 기복세력과 선문구산의 관계는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점이다. 또 선문구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산(智詵) 등 중국유학의 경향이 없는 독자적 선파(禪派)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불교는 선종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선 중심적인 면에서 선교유학을 슬로건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선법인 선문구산에 대한 이해

는 필수적일뿐 아니라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식인이 가진 공지가 아닌가. 불교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문화론을 논할 수 없다. 선문구산에 대한 식견없이 한국불교를 말할 수는 없다. 현대불교신론이 기획한 이 의미있는 '구산선문 참선기행'은 단순히 불교를 골동품적 가치로 인식하려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일 수 있다.

두너진 주춧돌에서 옛 영광을 떠올리고 그 사상의 편린들을 모아 역사의 공백을 메꾸는 일은 당연히 이 시대 불자들의 몫이다.

구산선문 참선 기행

4월: 가지산문(보림사)-운주사·쌍봉사

본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불교의 선맥을 따라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떠납니다. 4월 첫 기행은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인 보림사와 화불로 유명한 운주사, 국보 칠강선사부도당이 있는 쌍봉사를 참배합니다. 구산선문에 대한 이해는 독자 여러분의 신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출발: 4월 24일(토) 밤10시·조계사 앞
- 안내: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원)
-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정성호)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는 매일 교계뉴스 속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부다피아에 접속해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gwa (주)건화중합건축사무소
GUN WHA ARCHITECT & GROUP CO., LTD

종합 건축설계 · 종합 감리전문 · 마스터플랜 · 엔지니어링 · 시뮬레이션 및 애니메이션 · 구조물 안전진단
02)3443-7851 ~ 5 · 02)555-1567 ~ 8

주식회사 아라중합건축 · 건설

건축 시공 · 견적 · 유지 관리 · 강구조(P.E.B)
02)3443-7891 ~ 3 · 02)555-1567 ~ 8

SRI 아리건영(주)

주택 건설사업 / 사업성 검토 / 부동산 컨설팅 / 인테리어 / 건축자재 무역업
02)3443-5155 ~ 6 · 02)555-1567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8-9(정석빌딩3층) 대표이사 김기상